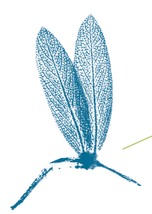
깨꽃(샐비어)으로 모기 만들기

깨꽃 이파리의 섬세한 문양을 이용해서 멋진 모기를 만들 수 있어.
《모기가 할 말 있대!》의 모기들도 그렇게 만들어졌지.

1 자연 속을 돌아다닐 때 주의를 기울이면 멋진 모양과 문양을 가진 식물을 발견하게 될 거야. 가장 먼저 특별히 마음에 드는 식물을 찾아, 꽃 누르미를 시작하려면 유리판 위에 붓으로 약간의(정말로 약간이면 돼) 물감을 칠해야 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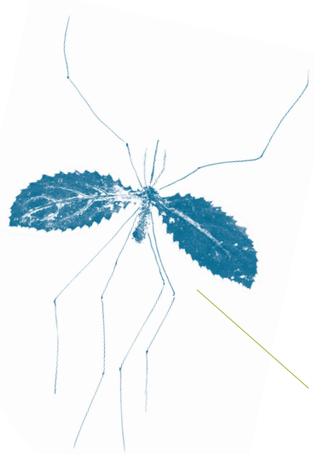
필요한 것

- 인쇄 잉크
- 인쇄용 롤러
- 종이
- 핀셋
- 유리판
- 싱싱한 식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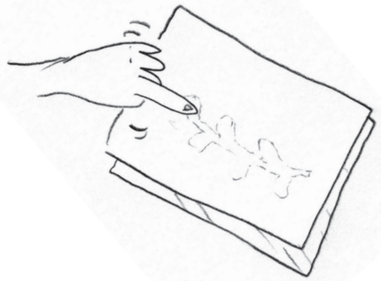
깨꽃 이파리에는 무수한 선으로 된 인상적인 문양이 있어.

2 물감 칠한 유리판 위에 식물을 놓고 조심스럽게 붓을 굴려. 이제 식물 양면에 물감이 묻을 거야. 핀셋으로 유리판에 붙어 있는 식물을 집어서 빈 종이 위에 올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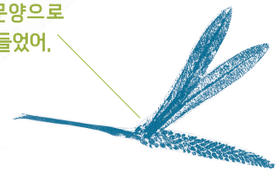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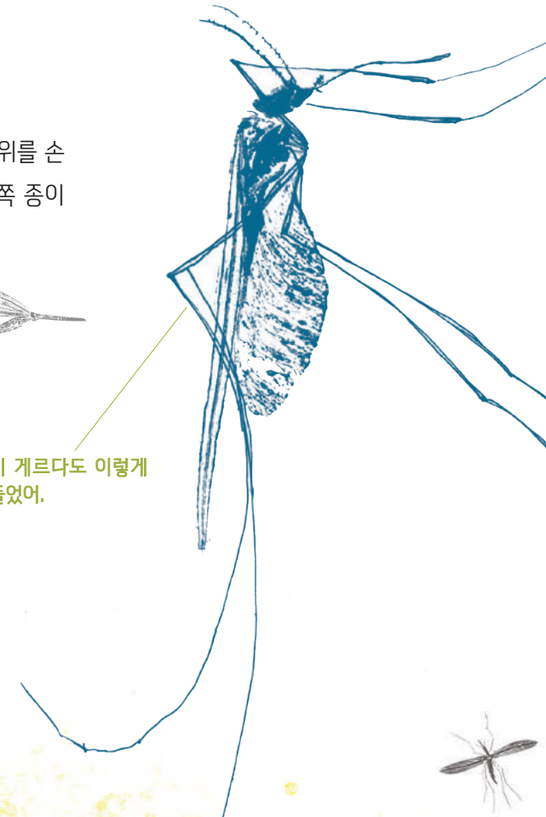
호랑가시나무 이파리에는 멋진 톱니가 있어. 이 문양은 아주 멋진 날개가 되지.

3 이제 다른 종이 한 장을 식물 위에 올려. 그다음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 내. 아래쪽 종이에 붙은 식물은 핀셋으로 떼어 내면 돼.



단풍나무 씨앗 문양으로 날씬한 모기를 만들었어.





모기 게르다도 이렇게 만들었어.

4 식물 문양이 찍힌 종이가 두 장이 되었어. 색연필이나 연필로 덧칠해서 동물을 만들 수도 있어. 아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걸.

모기가 할 말 있대!

하이디 트르팍 글 | 라우라 모모 아우프데어하르 그림 | 이정모 옮김 | 값 11,000원 | 25쪽

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모기! 귀찮게만 여겨지던 이 작은 곤충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로 불린다는 걸 알고 있어? 대체 이 동물의 정체가 무엇인지, 암컷 모기 게르다가 들려주는 모기 이야기를 들어볼까?

*2012 프리들 호프바우어상 수상작!
*2014 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!